

#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변화궤적 간 종단적 관계 및 예측요인 탐색\*

반지윤\*\* · 김동화\*\*\*

## I 알기 쉬운 개요

최근 청소년기 정서문제행동이 저연령화 추세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이 중학교 2학년에 이르기까지 정서행동문제가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고 동시에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외현화(공격성, 주의집중 부족) 문제 행동 수준이 높았던 학생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외현화가 느리게 증가하는 반면에 내재화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내재화(사회적 위축, 신체화, 우울) 문제행동 수준이 높았던 학생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내재화가 느리게 증가하는 반면에 외현화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시점의 외현화와 내재화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는 성별, 수면의 질, 자아존중감, 그릿,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종단적 관점에서 정서문제행동의 초기 수준이 이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청소년기 정서문제행동을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이 논문은 제1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서원대학교 조교수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교신저자, kk8ddd7hh@naver.com

투 고 일 / 2024. 6. 4.

심 사 일 / 2024. 7. 30.

심사완료일 / 2024. 8. 8.

## I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변화궤적을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 1,897명을 대상으로 1차년도(2018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5차년도(2022년, 중학교 2학년)까지 5년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4학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이 각각 증가했다. 둘째, 두 문제행동의 변화궤적 간 종단적 관계에서 외현화 초기치는 외현화 변화율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내재화의 초기치는 내재화 변화율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조건모형에서 외현화의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성별, 수면의 질, 자아존중감, 그릿, 스마트폰 의존도,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학생-교사 관계, 외현화 초기치, 내재화 초기치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재화의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성별, 수면의 질, 행복감, 자아존중감, 그릿, 스마트폰 의존도,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긍정적 또래관계, 외현화 초기치, 내재화 초기치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두 문제행동의 공통된 보호요인은 수면의 질, 자아존중감, 그릿으로 해석된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두 문제행동의 공통된 위험요인은 스마트폰 의존도,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외현화 초기치, 내재화 초기치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기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보호요인을 강화하고 위험요인을 낮추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종단적 탐구는 정서행동문제라는 변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이해를 돕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는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외현화, 내재화, 변화궤적, 예측요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KCYPS 2018

## I. 서 론

한국 사회에서 광범위한 확산을 보이는 청소년기 정서문제행동과 관련된 대책들은 주로 중·고등학생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서문제행동은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김영한, 조아미, 이승하, 변해진, 2013). 이러한 정서문제행동은 단순한 행동을 넘어 비행 또는 학교생활 부적응 나아가 촉법소년 범죄라는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대표적으로, 초기 청소년기 문제행동이 다양화되고 심각성을 보임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이은주, 이수정, 류민지, 2022). 소년법 처벌에 대한 연령 조정 정책 연구에 따르면(손현중, 성진기, 2023), 소년법이 개정된 2007년 기준으로 그들이 연구를 수행한 2022년 초반까지 KCI 등재학술지에서 촉법소년을 처벌할 수 있는 연령 기준에 대한 하향에 찬성과 반대한 연구는 각각 7건과 17건으로 나타나 반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제시한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연구 이외에도 촉법소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기보다 교화나 현행 보호 처분을 강화(김강현, 2022; 박소현, 2023)하는 방안을 통해 그들의 문제행동에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도 존재하였다. 즉, 법학 분야에서 처벌보다 그들의 행동을 개선할 여지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문제행동에 대한 예측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과 선제적 접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나타나는 정서문제행동의 변화와 예측 요인을 분석하고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을 위한 교육적 개입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편,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임에 따라, 많은 고민과 다양한 갈등을 마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축적되면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Compas, Orosan & Grant, 1993; Meeus, 2016). 이러한 갈등, 좌절 그리고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부적응의 상태가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이경상, 2011; Hampel & Petermann, 2006; Petersen, 1988).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에게서 부모와 겪는 갈등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나며, 스트레스 또한 청소년 문제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으로 취급된다(김영한 외, 2013).

다음으로 문제행동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문제행동에는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을 의미하는 내재화 문제행동(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외현화 문제행동(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이 포함된다(Achenbach, 1978, 1991a). 구체적으로 내재화에 불안, 우울, 위축 등이 포함되며, 외현화는 공격성이나 과잉행동 등이 포함된다(Achenbach, 1991b; Achenbach & Rescorla, 2000). 외현화 또는 내재화 관련 선행연구들은 앞선 두 문제행동

이 각각 독특한 부적응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밀접한 상호적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Buist, Deković, Meeus & van Aken, 2004). 그러나, 두 문제행동의 공동발달에 대한 종단적 기제나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Achenbach, Ivanova, Rescorla, Turner & Althoff, 2016; Reitz, Deković & Meijer, 2005).

지금까지 제기한 필요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이 중학교 2학년으로 성장하기까지 5년간 외현화와 내재화의 변화궤적이 서로 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러한 관계에서 예측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와 내재화의 동시 발생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기 발달 변화궤적이 종단적으로 어떠한지 탐색하고자 한다. 한편, 앞서 언급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은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2항에 해당하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서 그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는 5년간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변화궤적을 살펴보고 그 예측요인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촉법소년 연령과 맞물린 시점을 중심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년법 처벌에 대한 연령 조정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 및 그들의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초등학교 고학년 시점인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예측변수들이 외현화 및 내재화의 종단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기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외현화와 내재화의 변화궤적은 각각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외현화와 내재화의 발달궤적 간 종단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외현화와 내재화의 발달궤적 간 종단적 관계에 대한 예측요인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정서행동문제의 개념 및 유형

청소년기 정서행동문제는 사회적 기대나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행동적·심리적 부적응을 의미한다(Kauffman, 1997). 이러한 정서행동문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포함하여 둘 이상의 환경에서 일관성을 보인다(Landrum, 2017). 또한,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청소년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방법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Cross, 2011). 이러한 정서문제행동의 유형은 부적응과 갈등이 표출되는 방향에 따라 외현화(externalizing)와 내재화(internalizing)로 구분된다(Achenbach, 1991a;

Achenbach & Edelbrock, 1983). 먼저, 외현화는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는 과소 통제된 행동으로 주의산만, 과잉행동, 공격성, 충동성 등을 포함한다(Achenbach & Edelbrock, 1983). 이러한 외현화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폭력이나 파괴적·충동적 행동을 통해 자신의 분노, 불만, 증오, 원한 등을 표출하게 된다(Achenbach, 1991a). 다음으로, 내재화는 사회적으로 과잉 통제된 행동(over-controlled behavior)으로서 사회적 위축, 신체화 증상, 불안이나 우울 등을 포함한다(Achenbach & Edelbrock, 1983). 이러한 내재화는 개인의 내적 갈등이나 고통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통제로 인해 병리적 증상으로 표출된다(Achenbach, 1991a).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서행동문제를 외현화(주의집중 부족, 공격성)와 내재화(사회적 위축, 신체화 증상, 불안/우울)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외현화와 내재화는 각각 독특한 부적응적 문제행동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두 유형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lienfeld, 2003). 예컨대 산만하고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은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Gilliom & Shaw, 2004). 그동안 선행연구들은 두 문제행동의 횡단적 관계나 공동발달에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외현화와 내재화 간 종단적 관계나 발달적 변화에 작용하는 기제에 대한 지식은 여전히 부족하다(이은주, 2010; Wolff & Ollendick,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외현화와 내재화의 발달궤적을 살펴보고, 두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간 종단적 관계와 예측요인을 탐색하였다.

## 2.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기 정서행동문제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써 복합적으로 작용한다(Jessor & Jessor, 1977), 따라서, 청소년기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내적 요인은 행복감,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그림, 스마트폰 중독, 수면의 질 등이 있다(Dumont & Provost, 1999; Lee et al., 2018; Rubens et al., 2017; State & Kern, 2017). UN 산하의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이 공개한 2023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38개의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35위로 매우 낮은 행복감 수준을 보였다(Rowan, 2023). 청소년이 지각하는 행복감, 삶에 대한 만족감, 삶의 질 등은 그들이 처한 여건이나 복지 상태 등을 표명해 준다는 점에서 교육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추세이다(고도현, 김도영, 2021; 양수연, 오인수, 2023).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 주관적 행복감이 높으면 우울감이 낮고(Uusitalo-Malmivaara & Lehto, 2013), 신체화나 불안, 강박증, 반사회적 행동 등이 낮으며(Garaigordobil, 2015), 공격성이나 적대감, 분노 등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ılıçarslan & Liman, 2020).

행복감은 단순히 지각된 감정이 아니라 청소년기 부적응을 완화하거나 비행과 폭력을 예방하는 등의 유용한 심리적 자원임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주목하고 있다(Fernandes et al., 2020; Garaigordobil, 2015; McKnight, Huebner & Suldo, 2002). 또한, Lee 외(201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위축, 신체화 증상, 우울감/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고 동시에 공격성, 비행 문제, 주의력 결핍 등의 외현화 문제와도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관한 긍정적 평가 또는 부정적 평가와 관련되며, 자신에 대한 존중감, 자기-가치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Rosenberg & McCord, 1978).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또래 압력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정서문제행동에 취약하다(Zimmerman, Copeland, Shope & Dielman, 1997). 반면에, 스마트폰 중독은 외현화/내재화 문제와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lhai, Dvorak, Levine & Hall, 2017; Lee et al., 2018).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은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이 낮고(Laconi, Tricard & Chabrol, 2015; Xu, Turel & Yuan, 2012), 공격성과 충동성, 우울감, 불안이 높다는(Burnay, Billieux, Blairy & Larøi, 2015)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중독으로 야기되는 문제행동은 성인기의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Thapar, Collishaw, Pine & Thapar, 2012),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적응과 위기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적 과제이다.

다음으로, 외적 요인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긍정적 또래관계, 학생-교사 관계 등이 있다(Ban & Oh, 2016; Fortuin, van Geel & Vedder, 2015; Roorda & Koomen, 2020). 아들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부정적이고, 거부적이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 사춘기 소년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상대적으로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성향을 갖게 될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Olweus, 1980). 8학년을 대상으로 또래의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에서는 ‘경미한(light)’ 외현화에 있어서 또래가 영향력을 미치지만, 내재화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Fortuin et al., 2015). 학생-교사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학생-교사 간의 갈등이 해당 학년 동안에 교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동시적인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Myers & Pianta, 2008). 따라서, 가정 내에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필요하며, 그리고 가정 밖에서는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정립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을 토대로 내·외적 요인을 구분하여 연구모형에 투입하였다. 내적 요인으로 행복감, 자아존중감, 그릿, 스마트폰 중독, 수면의 질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외적 요인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긍정적 또래관계, 학생-교사 관계를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이하, NYPI)에서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으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이하, KCYPS 2018)’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18년에 시작된 ‘KCYPS 2018’은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복합적 변화 양상을 다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 종단자료로써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 패널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표본은 2018년(1차년도)부터 2022년(5차년도)까지 17개 시·도별 층화다단계 집락표집 방식으로 추출된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KCYPS 2018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1차년도(2018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5차년도(2022년, 중학교 2학년)까지 5년간 반복측정된 자료 중 완전제거법(listwise deletion)으로 결측치를 처리한 총 1,897명으로 남학생 935명(49.3%)과 여학생 962명(50.7%)이다.

####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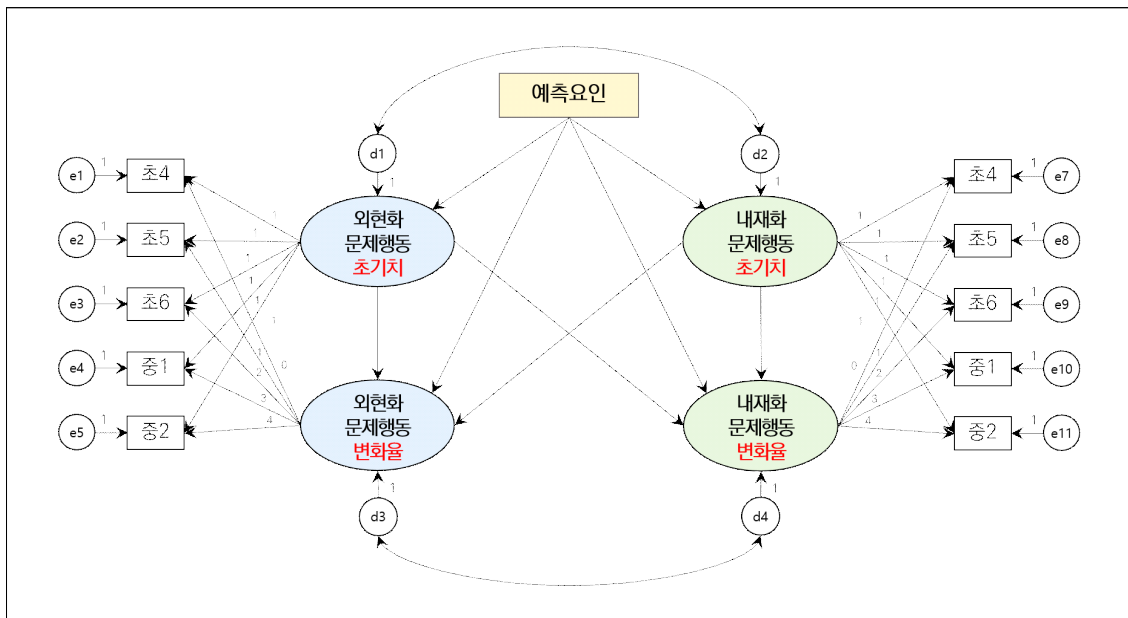


그림 1. 조건모형

### 3. 측정도구

#### 1) 정서행동문제

정서행동문제는 외현화와 내재화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이하, 초4)에서 중학교 2학년(이하, 중2)이 되는 1차년도(2018년)부터 5차년도(2022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 (1) 외현화 문제행동

외현화는 조봉환과 임경희(2003)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 척도에서 공격성 6문항과 주의집중 부족 7문항을 사용하였다. 한편,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이하, SMC)가 .40 이하인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공격성 4문항과 주의집중 부족 5문항만 사용하였다. 공격성 문항 내용은 ‘별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등으로 구성되며, 주의집중 부족 문항 내용은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진다’,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등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하는 4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외현화의 Cronbach's  $\alpha$ 는 초4 .854, 초5 .864, 초6 .874, 중1 .874, 중2 .873로 나타났다.

##### (2) 내재화 문제행동

다음으로 내재화는 신체화 증상과 우울, 사회적 위축으로 구성되는데, 신체화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조봉환과 임경희(2003)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에서 신체화 증상 8문항을 사용하였다. 우울은 김광일, 김재환과 원호택(1984)의 간이 정신진단검사의 우울 척도 중 13문항을 KCYPS 2018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위축은 김선희와 김경연(1998)의 척도를 KCYPS 2018 연구진이 중복 문항을 제거하고 수정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 한편, SMC가 .40 이하인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신체화 증상 4문항, 우울 9문항, 사회적 위축 5문항만 사용하였다. 신체화 증상의 문항 내용은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잠에서 깨곤 한다’와 ‘머리가 자주 아프다’ 등으로 구성되며, 우울 문항 내용은 ‘기운이 별로 없다’와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등으로 구성되고, 사회적 위축 문항 내용은 ‘주의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해한다’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등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하는 4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화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재화의 Cronbach’s  $\alpha$ 는 초4 .906, 초5 .919, 초6 .932, 중1 .919, 중2 .914로 나타났다.

## 2) 예측요인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내·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내적 요인은 성별과 수면의 질, 행복감, 자아존중감, 그릿, 스마트폰 의존도로 구성되며, 외적 요인은 가정환경 측면에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학교환경 측면에서 긍정적 또래관계, 학생-교사 관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alpha$ 는 수면의 질 .803, 행복감 .761, 자아존중감 .827, 그릿 .723, 스마트폰 의존도 .883,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822, 긍정적 또래관계 .846, 학생-교사 관계 .905로 나타났다. 성별을 제외한 모든 예측요인은 4점 Likert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각각의 출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예측요인의 출처

| 분류       | 변수(문항 수)          | 출처                                                                      |
|----------|-------------------|-------------------------------------------------------------------------|
| 내적<br>요인 | 성별 (1문항)          | KCYPS 2018 연구진이 구성한 성별(남자 1, 여자 2) 1문항을 활용함                             |
|          | 수면의 질 (2문항)       | 배상률, 김형주와 성은모(2013)의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문항 중 수면시간의 질 2문항을 활용함                 |
|          | 행복감 (4문항)         | 이정립, 김길숙, 송신영, 이예진, 김진미와 김신경(2015)의 육아정책연구소 행복 지수 4문항을 사용함              |
|          | 자아존중감 (10문항)      |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변안하여 수정한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과 이계오(2010)의 10문항을 활용함 |
|          | 그릿 (8문항)          | 김희명과 황매향(2015)의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의 8문항을 활용함                           |
|          | 스마트폰 의존도 (15문항)   | 김동일 외(2012)의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15문항을 활용함                                      |
| 외적<br>요인 |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12문항) | 김태명과 이은주(2017)의 청소년용 동기 모형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중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12문항을 활용함            |
|          | 긍정적 또래관계 (8문항)    | 배성만, 홍지영과 현명호(2015)의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 중 긍정적 또래관계 8문항을 활용함                  |
|          | 학생-교사 관계 (14문항)   | 김종백과 김남희(2009)의 학생-교사 애착 관계 척도의 14문항을 활용함                               |

##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5.0과 AMOS 26.0을 활용하였으며,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둘째, 변수별 시간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각 시점별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고, 구조방정식모형의 정상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각 시점별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Kline, 2016). 셋째,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외현화와 내재화의 변화궤적을 각각 살펴보기 위해 두 변수의 평균과 분산에 기초하여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궤적(trajecory)을 탐할 수 있는 단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Wang & Wang, 2019; 허준, 2015). 다섯째, 외현화와 내재화의 변화궤적 간 상호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병렬적 잠재성장모형(Parallel Process Latent Growth Model; 이하, PPLG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Cheong, Mackinnon & Khoo, 2003). PPLGM은 잠재변수가 2개 이상일 때의 변화궤적, 복수의 LGM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도록 확장된 모형으로(Cheong et al., 2003) 반복 측정된 두 문제행동 변수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궤적을 확인하는 동시에 두 문제행동 변수 간 어떠한 종단적 영향이 있는지 구조적으로 살펴보는 등 발달 산물의 변화를 보다 입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ollen & Curran, 2006). 여섯째, 외현화와 내재화의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외적 예측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앞선 PPLGM에 기초하여 예측변수를 투입하고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하였다.

## IV. 연구결과

주요 변수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첫째, 공격성과 주의 집중 부족, 신체화 증상, 우울의 평균값은 초4부터 초6까지 증가하다가 중1에 감소하고 다시 중2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위축 평균값은 초4부터 초6까지 증가하다가, 중1부터 중2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예측변수인 내적·외적 요인은 초4 시점의 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의 왜도 절대값은 .002~1.148, 첨도 절대값은 .031~1.340의 범위로 검증 기준을 충족했다(West, Finch & Curran, 1995).

표 2

## 주요 변수의 척도 및 정규성 검증

| 영역          | 변수         |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
|-------------|------------|----------------------------------|-------|-------|-------|-------|
| 외현화<br>문제행동 | 공격성        | 초등학교 4학년                         | 1.761 | .562  | .417  | -.317 |
|             |            | 초등학교 5학년                         | 1.832 | .572  | .476  | -.180 |
|             |            | 초등학교 6학년                         | 1.939 | .616  | .284  | -.522 |
|             |            | 중학교 1학년                          | 1.884 | .578  | .258  | -.402 |
|             |            | 중학교 2학년                          | 1.892 | .564  | .351  | .031  |
|             | 주의집중 부족    | 초등학교 4학년                         | 2.018 | .572  | .167  | -.177 |
|             |            | 초등학교 5학년                         | 2.100 | .567  | .120  | -.325 |
|             |            | 초등학교 6학년                         | 2.199 | .578  | .002  | -.294 |
|             |            | 중학교 1학년                          | 2.115 | .579  | .105  | -.181 |
|             |            | 중학교 2학년                          | 2.138 | .574  | .219  | .199  |
| 내재화<br>문제행동 | 신체화 증상     | 초등학교 4학년                         | 1.701 | .576  | .646  | -.218 |
|             |            | 초등학교 5학년                         | 1.775 | .594  | .617  | -.154 |
|             |            | 초등학교 6학년                         | 1.826 | .632  | .553  | -.335 |
|             |            | 중학교 1학년                          | 1.785 | .579  | .539  | -.052 |
|             |            | 중학교 2학년                          | 1.816 | .554  | .506  | .251  |
|             | 우울         | 초등학교 4학년                         | 1.537 | .533  | 1.148 | 1.340 |
|             |            | 초등학교 5학년                         | 1.656 | .561  | .925  | .677  |
|             |            | 초등학교 6학년                         | 1.760 | .614  | .699  | -.104 |
|             |            | 중학교 1학년                          | 1.731 | .551  | .585  | .064  |
|             |            | 중학교 2학년                          | 1.754 | .538  | .629  | .378  |
|             | 사회적 위축     | 초등학교 4학년                         | 2.027 | .744  | .305  | -.651 |
|             |            | 초등학교 5학년                         | 2.054 | .712  | .284  | -.555 |
|             |            | 초등학교 6학년                         | 2.184 | .744  | .113  | -.803 |
|             |            | 중학교 1학년                          | 2.100 | .717  | .389  | -.295 |
|             |            | 중학교 2학년                          | 2.093 | .691  | .418  | -.245 |
| 내적 요인       | 성별         | 남자: 935명(49.3%), 여자: 962명(50.7%) |       |       |       |       |
|             | 수면의 질      | 3.341                            | .595  | -.676 | .459  |       |
|             | 행복감        | 3.376                            | .513  | -.666 | .422  |       |
|             | 자아존중감      | 3.295                            | .468  | -.588 | .207  |       |
|             | 그릿         | 2.845                            | .476  | .191  | -.133 |       |
|             | 스마트폰 의존도   | 1.809                            | .507  | .564  | .258  |       |
| 외적 요인       |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 1.875                            | .476  | .437  | .307  |       |
|             | 긍정적 또래관계   | 2.990                            | .528  | -.253 | .434  |       |
|             | 학생-교사 관계   | 2.996                            | .492  | -.326 | .724  |       |

##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외현화 및 내재화, 예측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성별을 제외하고 정서행동문제와 예측변수 간 상관계수의 크기는 절대값 .047~.590 사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은 외현화와 내재화, 자아존중감 스마트폰 의존도, 긍정적 또래관계, 학생-교사 관계에만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 3. 연구모형에 대한 정서행동문제의 무조건모형 적합도

최적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 이차곡선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고 표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외현화와 내재화는 무변화모형과 이차곡선변화모형 각각 *NFI*, *TLI*, *CFI* 값 모두 .90 이하이고, *RMSEA* 값이 .60 이상으로 기각하였다. 외현화와 내재화가 5년 동안 각각 선형(linear)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는 선형변화모형은  $\chi^2$  값이 외현화 323.403 및 내재화 346.008로 크지만, *NFI*와 *TLI*, *CFI*가 모두 .09 이상이고, *RMSEA* 값의 적합도가 양호한 수준을 보여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한편, 이차곡선변화모형으로 발달 궤적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변화의 가속성 및 감속에 대한 모수 추정치가 유의하지 않아 간명성과 해석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형변화모형을 최종 선정하기도 한다(좌현숙, 2010).

표 3  
연구모형에 대한 정서행동문제의 무조건모형 적합도

| 구분       | 모형     | $\chi^2$   | <i>NFI</i> | <i>TLI</i> | <i>CFI</i> | <i>RMSEA</i> |
|----------|--------|------------|------------|------------|------------|--------------|
| 외현화 문제행동 | 무변화    | 623.396*** | .818       | .862       | .826       | .112         |
|          | 선형변화   | 323.403*** | .919       | .925       | .925       | .049         |
|          | 이차곡선변화 | 286.523*** | .899       | .894       | .894       | .068         |
| 내재화 문제행동 | 무변화    | 610.675*** | .732       | .801       | .716       | .136         |
|          | 선형변화   | 346.008*** | .915       | .914       | .921       | .054         |
|          | 이차곡선변화 | 289.742*** | .896       | .892       | .887       | .072         |

\*\*\*  $p < .001$

### 4. 정서행동문제의 변화궤적

선형변화모형에 대한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외현화와 내재화는 모두 점차 증가하며, 두 문제행동에 대한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미하여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외현화의 초기치 평균은 1.953( $p < .001$ )이고 변화율은 .023( $p < .001$ )임에 따라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023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현화의 초기치와 변화율 간 공분산은 -.021( $p < .001$ )로 부적 유의성을 보였기 때문에, 외현화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그 변화는 완만하게 상승한다. 다음으로, 내재화의 초기치 평균은 1.732( $p < .001$ )이고 변화율은 .040( $p < .001$ )임에 따라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040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재화의 초기치와 변화율 간 공분산은 -.020( $p < .001$ )으로 부적인 유의미성을 보였기 때문에, 내재화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그 변화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정서행동문제의 변화궤적에 대한 성장 모수 추정치

| 모형       |     | 평균                   | 분산                  | 공분산                  |
|----------|-----|----------------------|---------------------|----------------------|
| 외현화 문제행동 | 초기치 | 1.953 <sup>***</sup> | .149 <sup>***</sup> | -.021 <sup>***</sup> |
|          | 변화율 | .023 <sup>***</sup>  | .011 <sup>***</sup> |                      |
| 내재화 문제행동 | 초기치 | 1.732 <sup>***</sup> | .162 <sup>***</sup> | -.020 <sup>***</sup> |
|          | 변화율 | .040 <sup>***</sup>  | .008 <sup>***</sup> |                      |

<sup>\*\*\*</sup>  $p < .001$ 

## 5. 정서행동문제의 병렬적 잠재성장모형

무조건모형에 따라 구조 경로를 설정한 병렬적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하였다. 조건모형의 적합도는  $\chi^2=216.559(df=34)$ ,  $NFI=.970$ ,  $TLI=.968$ ,  $CFI=.978$ ,  $RMSEA=.051$ 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본 연구의 병렬적 잠재성장모형에서 추정된 경로 계수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정서행동문제의 병렬적 잠재성장모형 경로 계수

| 경로                | <i>B</i> | $\beta$              | <i>S.E.</i> | <i>C.R.</i> |
|-------------------|----------|----------------------|-------------|-------------|
| 외현화 초기치 → 외현화 변화율 | -.156    | -.596 <sup>***</sup> | .014        | -9.259      |
| 외현화 초기치 → 내재화 변화율 | .016     | .065                 | .012        | 1.414       |
| 내재화 초기치 → 내재화 변화율 | -.159    | -.638 <sup>***</sup> | .013        | -9.886      |
| 내재화 초기치 → 외현화 변화율 | .021     | .080                 | .012        | 1.657       |

<sup>\*\*\*</sup>  $p < .001$ 

첫째, 외현화 초기치와 외현화 변화율 간 모수 추정치는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화 초기치 값이 높을수록 외현화 변화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beta = -.596$ ,  $p < .001$ ). 둘째, 내재화 초기치와 내재화 변화율 간 모수 추정치는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화 초기치 값이 높을수록 내재화 변화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beta = -.638$ ,  $p < .001$ ). 한편, 외현화 초기치와 내재화 변화율 간 모수 추정치 및 내재화 초기치와 외현화 변화율 간 모수 추정치는 각각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6. 외현화와 내재화의 변화궤적 간 종단적 관계에서 예측요인 탐색

예측요인을 투입한 조건모형의 적합도는  $\chi^2=363.313(df=82)$ ,  $NFI=.965$ ,  $TLI=.952$ ,  $CFI=.972$ ,  $RMSEA=.037$ 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서 구축된 경로를 바탕으로 예측요인이 정서행동문제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정서행동문제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경로 계수

|             | 구분             | 초기치        |          |             |             | 변화율      |          |             |             |        |
|-------------|----------------|------------|----------|-------------|-------------|----------|----------|-------------|-------------|--------|
|             |                | <i>B</i>   | $\beta$  | <i>S.E.</i> | <i>C.R.</i> | <i>B</i> | $\beta$  | <i>S.E.</i> | <i>C.R.</i> |        |
| 외현화<br>문제행동 | 성별: 남(1), 여(2) | -.125      | -.140*** | .017        | -7.205      | -.002    | -.007    | .007        | -.211       |        |
|             | 수면의 질          | -.061      | -.082*** | .015        | -4.134      | .003     | .014     | .006        | .458        |        |
|             | 내적<br>요인       | 행복감        | -.063    | -.075*      | .025        | -2.508   | .015     | .068        | .009        | 1.614  |
|             | 자아존중감          | -.249      | -.272*** | .028        | -8.952      | .045     | .190***  | .012        | 3.796       |        |
|             | 그릿             | .378       | -.403*** | .024        | -15.982     | .047     | .201***  | .014        | 3.371       |        |
|             | 스마트폰 의존도       | .317       | .375***  | .020        | 15.835      | -.039    | -.181*** | .009        | -4.303      |        |
|             | 외적<br>요인       |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 .161     | .172***     | .023        | 7.126    | -.028    | .120**      | .010        | -2.904 |
|             | 긍정적 또래관계       | -.045      | -.056*   | .019        | -2.243      | .012     | .052     | .010        | 1.292       |        |
|             | 학생-교사 관계       | -.124      | -.142*** | .022        | -5.706      | -.009    | -.042    | .007        | -1.253      |        |
|             | 외현화 문제행동 초기치   | -          | -        | -           | -           | -.130    | -.505*** | .020        | -6.542      |        |
|             | 내재화 문제행동 초기치   | -          | -        | -           | -           | .057     | .226**   | .018        | 3.194       |        |
| 내재화<br>문제행동 | 성별: 남(1), 여(2) | .099       | .112***  | .016        | 6.185       | .020     | .093**   | .007        | 3.033       |        |
|             | 수면의 질          | -.077      | -.105*** | .014        | -5.666      | .006     | .034     | .005        | 1.111       |        |
|             | 내적<br>요인       | 행복감        | -.222    | -.263***    | .022        | -1.149   | .016     | .076        | .009        | 1.826  |
|             | 자아존중감          | -.332      | -.358*** | .024        | -13.609     | .043     | .189***  | .011        | 3.911       |        |
|             | 그릿             | -.188      | -.203*** | .022        | -8.624      | .043     | .191***  | .012        | 3.511       |        |
|             | 스마트폰 의존도       | .097       | .113***  | .018        | 5.512       | -.028    | -.131*** | .008        | -3.489      |        |
|             | 외적<br>요인       |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 .129     | .139***     | .021        | 6.182    | -.027    | -.122**     | .009        | -3.044 |
|             | 긍정적 또래관계       | -.089      | -.109*** | .018        | -5.022      | -.005    | -.024    | .006        | -.752       |        |
|             | 학생-교사 관계       | -.030      | -.034    | .019        | -1.573      | -.001    | -.003    | .007        | -.107       |        |
|             | 외현화 문제행동 초기치   | -          | -        | -           | -           | .050     | .202**   | .016        | 3.220       |        |
|             | 내재화 문제행동 초기치   | -          | -        | -           | -           | -.140    | -.571*** | .020        | -7.125      |        |

\*\*\*  $p < .001$ , \*\*  $p < .01$ , \*  $p < .05$ 

첫째, 외현화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beta = -.140$ ,  $p < .001$ ), 수면의 질( $\beta = -.082$ ,  $p < .001$ ) 행복감( $\beta = -.075$ ,  $p < .05$ ), 자아존중감( $\beta = -.272$ ,  $p < .001$ ), 그릿( $\beta = -.403$ ,  $p < .001$ ), 긍정적 또래관계( $\beta = -.056$ ,  $p < .05$ ), 학생-교사 관계( $\beta = -.142$ ,  $p < .001$ ), 스마트폰 의존도( $\beta$

=.375,  $p<.001$ ),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beta=.172$ ,  $p<.001$ )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이 인식한 행복감과 수면의 질, 자아존중감, 그릿이 낮을수록, 또래관계와 학생-교사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부모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동일 시점의 외현화를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외현화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마트폰 의존도( $\beta=-.181$ ,  $p<.001$ ),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beta=-.120$ ,  $p<.001$ ), 외현화 초기치( $\beta=-.505$ ,  $p<.001$ ), 자아존중감( $\beta=.190$ ,  $p<.001$ ), 그릿( $\beta=.201$ ,  $p<.001$ ), 내재화 초기치( $\beta=.226$ ,  $p<.01$ )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서 지각된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부모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외현화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과 그릿, 내재화가 높을수록, 초등학교 4학년에 중학교 2학년까지 5년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현화 발달궤적의 증가 폭이 큼을 의미한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서 지각된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을수록,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외현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그릿, 내재화가 낮을수록, 초등학교 4학년에 중학교 2학년까지 5년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현화 발달궤적의 증가 폭이 작음을 의미한다.

셋째, 내재화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면의 질( $\beta=-.105$ ,  $p<.001$ ), 행복감( $\beta=-.263$ ,  $p<.001$ ), 자아존중감( $\beta=-.358$ ,  $p<.001$ ), 그릿( $\beta=-.203$ ,  $p<.001$ ), 긍정적 또래관계( $\beta=-.109$ ,  $p<.001$ ), 성별( $\beta=.112$ ,  $p<.001$ ), 스마트폰 의존도( $\beta=.113$ ,  $p<.001$ ),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beta=.139$ ,  $p<.001$ )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서 지각된 수면의 질과 행복감, 자아존중감, 그릿이 낮을수록,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동일 시점의 내재화를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내재화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마트폰 의존도( $\beta=-.131$ ,  $p<.001$ ),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beta=-.122$ ,  $p<.01$ ), 내재화 초기치( $\beta=-.571$ ,  $p<.001$ ), 성별( $\beta=.093$ ,  $p<.01$ ), 자아존중감( $\beta=.189$ ,  $p<.001$ ), 그릿( $\beta=.191$ ,  $p<.001$ ), 외현화 초기치( $\beta=.202$ ,  $p<.01$ )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 인식한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부모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내재화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과 그릿, 외현화가 높을수록, 초등학교 4학년에 중학교 2학년까지 5년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재화 발달궤적의 증가 폭이 큼을 의미한다. 즉,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서 지각된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을수록,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내재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그릿, 외현화가 낮을수록, 초등학교 4학년에 중학교 2학년까지 5년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재화 발달궤적의 증가 폭이 작음을 의미한다.

## V. 논의 및 결론

### 1. 외현화와 내재화의 변화궤적

먼저, 외현화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년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외현화인 공격성을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초4부터 중2까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재철, 최지영, 2010; 한은영, 2014). 이는 초기 청소년기 친한 친구의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그리고 성관계 등 일탈 경험이 공격성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김재철, 최지영, 2010), 학년이 올라감에 자기통제력 수준이 낮아질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한은영, 2014). 그러나, 연구대상을 달리한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수행한 연구에서는 공격성이 초5부터 중1까지 감소한다는 결과(최정원, 조은영, 2020)도 있어서 이러한 해석에는 주의를 요한다. 다음으로, 내재화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년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내재화가 초6부터 중1에 이르는 시기에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일부 일치한다(이은주, 2010).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으로 학교급 전환을 경험하는 사춘기의 청소년은 학업 스트레스나 또래 간 갈등 등으로부터 다면적인 부정적 영향을 겪게 되면서 우울감이나 불안,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서미정, 2008; 좌현숙, 2010; Fortuin, van Geel & Vedder, 2015; You, Shin & Kim, 2021).

### 2. 외현화와 내재화의 변화궤적 간 종단적 관계

본 연구에서는 병렬적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외현화와 내재화 간 종단적 관계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외현화의 초기치는 외현화의 변화율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외현화가 많은 학생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현화가 완만하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천장효과(ceiling effect)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관찰되는 높은 수준의 외현화가 5년간의 외현화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초기에 이미 외현화가 매우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이상 증가할 여지가 적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탈을 경험하는 친구가 많아서 그들의 영향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외현화 초기치를 보이는 청소년들에게서 중학교 2학년에서 3년 동안 외현화의 변화율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이주리(2008)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유아기를 보내는 만 4세부터 3년간 외현화의 초기치가 높은 수준

에 있는 유아에게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의 외현화가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인다는 김선희(2018)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외현화를 보이는 초기 청소년 중에서 높은 초기치를 보이는 학생들을 위한 선제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일탈을 경험하는 또래를 많이 접하는 초기 청소년을 최우선 대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내재화의 초기치는 내재화의 변화율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내재화가 많은 학생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재화가 완만하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앞선 외현화의 결과에서처럼 내재화 역시 천장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관찰되는 높은 수준의 내재화가 5년간의 내재화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초기에 이미 내재화가 매우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4년간 학업성취감 수준이 낮아 내재화 초기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 아동일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들의 내재화가 증가하기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서미정(2008)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4년간 부부갈등이나 자녀 학대에 많이 노출되어 내재화의 초기치가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아동에게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의 내재화가 증가할 여지가 적었다는 이은주(2010)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높은 내재화 초기치를 보이는 초기 청소년에 대해서 선제적 개입 또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학업성취감 수준이 낮거나, 또는 부모가 잦은 부부 갈등을 겪거나 자녀에게 비교적 잦은 학대 행위를 접하는 초기 청소년을 최우선 대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외현화 초기치와 내재화 변화율의 관계 및 내재화 초기치와 외현화 변화율의 관계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문제행동의 인과적 방향 모델(causal direction model)을 검증한 선행연구들과 상반된 결과이다(이은주, 2010; Liu, Thompson, Watson, Montena & Warren, 2023; Oh, Greenberg, Willoughby & Family Life Project Key Investigators, 2020).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에서는 외현화 초기치가 3년간의 내재화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재화 초기치는 3년간의 외현화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주, 2010). 즉, 두 문제행동 간 종단적 발달에 상호적 관계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은주(2010)의 연구는 두 문제행동 간 인과적 방향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외현화 초기치와 외현화 변화율의 관계, 내재화 초기치와 내재화 변화율의 관계에 대한 경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정서행동문제의 변화 양상은 청소년기 발달 전반에 걸쳐 경로의 안정성과 지속성, 외현화와 내재화의 공동발달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종단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며 도출된 결과를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3. 외현화와 내재화의 변화궤적에 대한 예측요인

본 연구에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외현화와 내재화의 변화궤적 간 종단적 관계에서 예측요인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은 외현화 초기치와 내재화 초기치, 내재화 변화율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외현화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즉, 성별은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 두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공통(common) 요인이지만, 성별이 내재화의 종단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domain-specific) 요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 시점의 정서행동문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일 수 있으며, 이때 남학생은 향후 5년간 내재화가 소폭 증가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도희(2020) 및 백승영(2016)과 일치한다. 남녀 모두 공격적이고 적대적 태도를 보일 수 있지만 표현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Crick & Grotpeter, 1995), 남학생은 경쟁적이고 도구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아 그들의 목표를 방해하는 타인에 대해 외현적 형태로 공격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더 많은 반면에 여학생은 경쟁적 지배보다는 친밀한 관계적 목표를 두고 있어 내재적 형태로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서미정, 2011; 오인수, 2014). 또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5년간 여학생의 내재화 변화율이 남학생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결과는 김재철과 최지영(2010)과도 일치한다. 내재화된 문제행동의 경우 여학생의 변화율이 남학생보다 커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차이가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로 학교급과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되는 심리적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부적응 등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우울감이나 불안, 사회적 위축, 신체화 증상 등으로 내재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박종효, 2007).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내재화에 대한 교사의 교육적 배려와 부모의 양육적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수면의 질은 외현화 초기치와 내재화 초기치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각 문제행동의 종단적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즉, 수면의 질은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 두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공통요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 시점의 수면의 질이 나쁠수록 동일 시점의 정서행동문제 수준이 높을 수 있지만, 수면의 질 초기치가 향후 5년간 두 문제행동의 변화율을 예측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청소년기 수면은 6~8시간 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Hughes & Rogers, 2004). 수면시간은 아동과 청소년의 안녕감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 청소년기의 적절한 수면은 뇌의 성장과 생물학적 변화, 심리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신체적·정서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Redeker, Rugiero & Hedges, 2004). 특히, 수면시간은 학업적 능력이나 인지기능, 주의집중과 관련 있어 청소년기 발달에

도 영향을 미치며(Taveras, Rifas-Shiman, Oken, Gunderson & Gillman, 2008). 수면의 질이 낮을 경우 주의집중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학습적 능력에 저하되고 신체적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Wolfson & Carskadon, 2003). 이러한 낮은 질의 수면은 활력을 저하시켜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고 높은 공격성과 주의집중 부족 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정서행동문제와도 밀접하다(유미애, 강나경, 이혜진, 2017; 하문선, 2017).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교육적 개입에 있어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정 내 지도편달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행복감은 내재화 초기치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4학년 시점의 행복감이 높은 학생은 동일 시점의 내재화 수준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행복감과 내재화의 부적 관계가 검증된 결과와 일치한다(김선숙, 2016).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감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고 되어 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행복 지수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기존의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OECD 국가 중에서 교육 영역의 최상위 점수로 확인된 반면에 그들의 행복감은 최하위로 조사되었다(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 이는 학업성취 제고를 위해 청소년기 아이들의 행복이 희생되고 있는 현실을 웅변하고 있다(이상록, 김은경, 윤희선, 2015).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정서행동문제를 높게 지각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수많은 긍정심리학자는 부정적 정서의 경감을 넘어 높은 행복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Duckworth, Steen & Seligman, 2005),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고학년의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교육적 개입이 그들의 우울감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 학교 장면에서는 인지치료를 적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의 교과연계 활동을 통해 계획과 실행을 통해 얻는 즐거움이나 성취감을 기록하도록 하여 긍정적 정서를 느끼도록 도울 때 우울이나 사회적 위축 등의 내재화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Dimidjian, Martell, Herman-Dunn & Hubley, 2021).

넷째, 자아존중감은 외현화와 내재화의 초기치 모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동일 시점의 외현화 또는 내재화 수준이 높다는 성정혜와 김춘경(2019)의 주장과 일치하며, 자아존중감이 정서행동문제에 공동으로 관계된다는 주장(김선희, 김경연, 1999; 김선희, 김경연, 2001)과 유사한 맥락이다. 자아존중감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토대가 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경남, 김정미, 2019). 아동기 이후에 건강하지 않은 자아존중감은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를 야기한다(성정혜, 김춘경, 2019).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발달 과제를 해결하면서 얻게 되는 자신에 대한 가치감으로 자신이 소속한 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Coopersmith, 1981).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또래들로부터 거부당하는 느낌을 감소시키기 위해 문제행동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서행동문제를 교육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감과 자신감 등을 확립해 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은 외현화와 내재화의 변화율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서,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서행동문제의 증가 폭을 가파르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급이 전환되는 초기 청소년기는 사춘기에 따른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겪는 동시에 교과와 수와 다양한 평가를 받는 등의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이처럼 사회적·학업적으로 또래 간 상대적 비교를 많이 받게 되면 자아존중감은 점차 낮아진다(Orth, Erol & Luciano, 2018). 초기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는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자기존중과 자기수용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이차선, 2000), 자아존중감 확립의 욕구가 환경적 맥락에 의해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아지면서 정서행동문제로 표출될 수 있다(박선태, 임성옥, 2017).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이 중학생으로 학교급 전환을 경험할 때 그들의 정서행동문제의 보호요인으로서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초기 청소년을 위한 정서행동문제 예방 프로그램 개발 시 긍정적 자아상과 자기수용 등과 같은 자아존중감 고취를 위한 활동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그릿은 외현화와 내재화의 초기치 모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릿이 낮을수록 동일 시점의 외현화 또는 내재화 수준이 높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김현지, 구분호, 이현우, 2021; 이정애, 김가현, 2022)와 일치한다.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혜원, 김예림, 박소영, 2020)에서는 그릿을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석하였는데, 흥미를 유지하지 못하고 노력을 지속하지 못할수록 공격성과 우울감이 높고 주의집중 부족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릿이 낮은 아이들은 외현화 또는 내재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하는 것이 그릿의 발현임을 고려하였을 때(황매향, 2019), 초기 청소년의 그릿 증진을 위하여 그들의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 문제를 해결하고 분노나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그릿은 외현화와 내재화의 변화율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서, 높은 수준의 그릿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서행동문제의 증가 폭을 완만하게 하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릿이란 역경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힘으로 정의된다(Duckworth, 2016). 이러한 그릿은 개인에게 발생하는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 꾸준

한 노력을 기울이는 특성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내재적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ci & Ryan, 2000). 이러한 그릿은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 등의 욕구를 촉진시켜 문제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Guerrero, Dudovitz, Chung, Dosanjh & Wong, 2016).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시점의 건강한 그릿이 중학교 2학년이 되는 5년간 정서행동문제의 증가 폭을 느리게 하는 보호요인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초기 청소년기의 그릿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서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최예라, 2022). 이처럼 그릿은 긍정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변수들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외현화 및 내재화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낮춰주는 보호요인이기 때문에(장유진, 이승연, 장유나, 홍세희, 2021) 초기 청소년의 그릿 함양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학교급 전환을 고려한 장기적 차원의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국내에서는 중학생의 끈기와 흥미 유지 증진에 효과적인 그릿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해외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Get grit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이승진, 최려나, 정익중, 2022). 학교 차원에서는 전문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 위(Wee) 센터 연계 등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급 전환기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단순한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보다는 학생들의 참여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 또는 집단상담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하문선, 김은선, 한은지, 2021).

여섯째, 스마트폰 의존도는 외현화의 초기치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동일 시점의 외현화 수준이 높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김동일, 정여주, 이윤희, 강민철, 전호정, 2015; 심혜선, 전종설, 2018)와 일치한다. 스마트폰 의존도는 공격성이나 주의집중 부족과 같은 외현화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박혜선, 김형모, 2016; 박이슬, 김선미, 김영희, 2022). 특히,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고(박혜선, 김형모, 2016), 일상에서의 주의집중 부족에 대한 어려움도 겪는다(박이슬 외, 2022). 즉,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저학년 시기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 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외현화 수준도 높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 사용에 있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개입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초등학교는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발달 시기에 해당하므로 예방적 접근의 스마트폰 사용 교육이 긍정적일 것이다(김희진, 유형근, 정연홍, 2014). 다음으로 스마트폰 의존도는 외현화와 내재화의 변화율에 모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학년 증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증가 폭이 느린 것을 의미한다. 즉, 초기 시점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정서행동문제의 증가율이 완만한 것이다. 따라서, 정서행동문제가 높은 초기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장기적인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 예컨대, 등교 시간과 하교 이후의 시간에는 각각 교사와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관련 감독, 모니터링, 통제 방안 등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일곱째,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외현화와 내재화의 초기치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녀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동일 시점의 외현화 또는 내재화 수준이 높다는 다수의 결과(이찬숙, 현은자, 2008; 이정윤, 최수미, 2011; 이웅택, 이은경, 2012)와 일치한다. 즉,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그들의 정서행동문제 수준이 높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저학년에 이르는 시기는 진로 또는 학업 관련 문제로 고민이 많은 시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자유학년제를 통해 부모와의 협력적인 대화 기술을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외현화와 내재화의 변화율에 모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높을수록 학년 증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증가 폭이 완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시점의 부모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강요적이거나 거부적이거나 비일관적) 이후 시점의 정서행동문제의 증가율이 완만한 것이다. 즉, 초기 청소년기에 지각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정서행동문제의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증가의 폭은 완만하지만, 자녀 개인의 내적 요인이 아닌 가정환경 요인이 자녀의 내적 요인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중장기 교육심리적 개입이 절실하다.

여덟째, 긍정적 또래관계는 내재화 초기치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한 학생은 동일 시점의 내재화 수준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 비행집단에서 또래관계에 문제가 많을수록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재화가 증가한다는 횡단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이해경, 2013).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에 중학교 저학년에 이르는 시점의 초기 청소년 집단에서 또래관계가 내재화와 외현화 모두에게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강지현, 2014)와 일부 일치한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기 학생들을 위해서 신체화 증상, 우울, 그리고 사회적 위축과 같은 내재화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이들의 긍정적인 또래관계 확립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홉째, 학생-교사 관계는 외현화 초기치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 교사-학생 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한 학생은 동일 시점의 외현화 수준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에 있어서 외현화가 학생-교사 관계에 영향을 내재화보다 더 많이 미친다는 횡단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미영, 조윤정, 박병금, 2012).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외현화인 공격성의 초기치에 학생-교사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김수정, 정익

중, 2017). 따라서, 초기 청소년기 학생들을 위해서 공격성과 주의집중 부족과 같은 외현화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이들이 교사와 충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열째, 외현화 초기치는 외현화 변화율에 부적 영향을 미친 반면에 내재화 변화율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시점의 외현화 수준이 높을수록 외현화 증가율은 완만하고 내재화 증가율이 급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내재화 초기치는 외현화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내재화 변화율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시점의 내재화 수준이 높을수록 외현화 증가율이 급격하고 내재화 증가율은 완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해 보면,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 인식한 외현화와 내재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현화는 내재화 증가율에, 내재화는 외현화 증가율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쳐 기울기를 가파르게 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초기 시점에 외현화가 높았던 아이는 이후 시점에 외현화가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내재화는 급격하게 증가하도록 예측하는 변수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초기 시점에 내재화가 높았던 아이는 이후 시점에 내재화가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외현화는 급격하게 증가하도록 하는 예측변수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시점의 공격성과 이후 시점의 우울이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김경호, 2019), 그리고 내재화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외현화의 증가 폭이 큼을 보고한 연구(이은주, 2010)와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 집단에서 내재화를 경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결을 위한 실마리로 내재화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외현화와 외현화의 공동발달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 4.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의 교육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에 이르는 5년간의 시점에서 정서행동문제의 종단적 변화 추이를 탐색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Collishaw(2015)는 정서행동문제라는 것이 고정된 변수가 아니라 동적인 것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정서행동문제의 발달적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기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외현화 및 내재화의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개인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세심히 탐색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시점의 외현화와 내재화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서는 성별, 수면의 질, 자아존중감, 그릿,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만 확인되었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정서행동문제가 동일 시점의 개인 내적 요인과 가정환경에 관련이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서행동문제라는 변수는 연구대상의 발달 연령을 고려하여 동일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다면적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기 외현화와 내재화를 다룬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외현화와 내재화를 분리하거나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그쳤다면, 본 연구는 외현화와 내재화의 발달궤적 간 종단적 관계를 살피고 그러한 경로에서 공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외적 요인을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정서행동문제는 외현화와 내재화가 동반되어 청소년의 발달에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제기할 수 있었으며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교육적 개입과 치료 계획·전략을 수립하는 데 학생의 개인 내적 요인 및 가정환경, 학교 환경 등의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상기의 함의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측정도구 중 그릿이나 행복감,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변수의 신뢰도가 .8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변수들은 KCYPS 2018이 패널 조사라는 특성상 원척도의 문항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변수를 대표하는 속성을 제대로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신뢰도가 확보된 .9 이상의 측정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에 이르는 5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청소년기 정서행동문제의 변화궤적을 예측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 전체에 대한 발달을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시점을 추가하여 종단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외현화와 내재화를 각각 단일변수로 하여 변화궤적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외현화는 공격성과 주의집중 부족, 내재화는 우울과 사회적 위축, 신체화 증상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정서행동문제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하위 문제행동에 대한 개별적인 변화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지현 (2014). 후기 아동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에 미치는 아동의 성별, 지각된 학업성적, 부모, 또래의 영향. **초등상담연구**, 13(1), 155-173.
- 고도현, 김도영 (2021). “청소년 행복” 연구 동향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28(12), 189-215. doi:10.21509/KJYS.2021.12.28.12.189
- 김강현 (2022). 교화와 처벌의 정책 딜레마: 촉법소년제도의 분석. **입법과 정책**, 14(2), 179-208. doi:10.22809/nars.2022.14.2.007
- 김경호 (2019).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의 적용. **보건사회연구**, 39(3), 239-279. doi:10.15709/hswr.2019.39.3.239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김도희 (2020). 부모-아동-교사-또래 간의 상호관계 모형: 정성행동문제, 자존감, 협동심, 성별을 중심으로. **재활심리연구**, 27(4), 43-66. doi:10.35734/karp.2020.27.4.003
- 김동일, 정여주, 이윤희, 강민철, 전호정 (2015).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6(4), 283-300. doi:10.15703/kjc.16.4.201508.283
- 김동일, 정여주, 이주영, 김명찬, 이윤희, 강은비, 금창민, 남지은 (2012).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3(2), 629-644. doi:10.15703/kjc.13.2.201204.629
- 김미영, 조윤정, 박병금 (2012). 가족, 교사 및 친구관계와 청소년의 문제행동. **학교사회복지**, 22, 49-77.
- 김선숙 (2016). 아동의 행복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태체계적 관점의 적용. **학교사회복지**, 34, 91-108.
- 김선희 (2018).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유아기 외현화 행동문제 발달궤적 유형에 따른 초등 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과 실행기능 곤란. **아동학회지**, 39(6), 41-56. doi:10.5723/kjcs.2018.39.6.41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선희, 김경연 (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 간의 인과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55-166.
- 김선희, 김경연 (2001).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아동학회지**, 22(1), 19-34.
- 김수정, 정익중 (2017). 유아의 공격성 발달궤적이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1(1), 81-103. doi:10.5718/kcep.2017.11.1.81

- 김영한, 조아미, 이승하, 변해진 (2013).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 과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재철, 최지영 (2010).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및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에 대한 친한 친구 관련 변수의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1), 123-147.
- 김종백, 김남희 (2009). 교원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학생-교사 애착관계도구(STARS) 개발과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3(4), 697-714.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 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doi:10.21509/KJYS.2017.03.24.3.313
- 김현지, 구본호, 이현우 (2021).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그릿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9), 651-666. doi:10.22251/jlcci.2021.21.9.651
- 김희명, 황매향 (2015)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의 타당화. **교육논총**, 35(3), 63-74. doi:10.25020/je.2015.35.3.63
- 김희진, 유형근, 정연홍 (2014). 초등학교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5), 87-106.
- 박경남, 김정미 (2019). 부모지지와 자아요인, 정서조절,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문화연구**, 25(2), 595-616. doi:10.24159/joec.2019.25.2.595
- 박소현 (2023). 촉법소년에 대한 국가개입의 개선방안. **형사정책**, 35(2), 105-130. doi:10.36999/kjc.2023.35.2.105
- 박이슬, 김선미, 김영희 (2022).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이 주의집중 문제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수면의 질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9(3), 219-241. doi:10.21509/KJYS.2022.03.29.3.219
- 박종효 (2007). 초·중·고등학생의 정신건강 수준과 변화 추이 분석: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논문집**, 209-230.
- 박혜선, 김형모 (2016).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3), 498-512. doi:10.5392/JKCA.2016.16.03.498
- 반지윤, 오인수 (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을 매개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성별 다중집단분석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31(1), 129-156. doi:10.14816/sky.2020.31.1.129

- 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배성만, 홍지영, 현명호 (2015).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5), 325-344.
- 백승영 (2016). 아동·청소년의 성별 및 학업성취 수준과 정서행동문제 차이 분석. **인문사회** 21, 7(5), 659-675. doi:10.22143/HSS21.7.5.34
- 서미정 (2008).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행동문제 변화에 대한 성별 및 학업성취감의 영향력 검증: 우울/불안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4), 115-138.
- 서미정 (2011). 아동과 청소년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성별 차이 및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학회지**, 32(3), 143-162.
- 성정혜, 김춘경 (2019).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간 구조적 관계: 아동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육아정책연구**, 13(2), 47-71. doi:10.5718/kcep.2019.13.2.47
- 손현중, 성진기 (2023). 촉법소년 연령 정책에 관한 정책분석과 시사점 연구: Kingdon의 정책 흐름 모형 중심으로. **범죄수사학연구**, 9(1), 111-132. doi:10.46225/CIS.2023.04.9.1.111
- 심혜선, 전종설 (2018).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0(1), 275-300. doi:10.19034/KAYW.2018.20.1.12
- 양수연, 오인수 (2023). 청소년 행복감의 변화궤적에 대한 그릿, 학업열의,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3(3), 23-52. doi:10.34226/gcl.2023.13.3.23
- 연세대학교 사회발달연구소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구축과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연세대학교.
- 오인수 (2014). 성별에 따른 유형별 공격성과 전통적 괴롭힘 및 사이버 괴롭힘 가해의 관계. **상담학연구**, 15(5), 1871-1885. doi:10.15703/kjc.15.5.201410.1871
- 유미애, 강나경, 이혜진 (2017). 청소년의 수면습관, 주간졸음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5), 305-315. doi:10.14400/JDC.2017.15.5.305
- 이경상 (2011). 청소년 학교부적응의 종단적 변화의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18(12), 131-155.
- 이상록, 김은경, 윤희선 (2015). 청소년의 행복감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4), 413-438. doi:10.16881/jss.2015.10.26.4.413
- 이승진, 최려나, 정익중 (2022). 부모의 양육태도가 그릿을 매개로 청소년의 학업성적 및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24(1), 117-143. doi:10.19034/KAYW.2022.24.1.06

- 이은주 (2010).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의 종단적 공동발달: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1(4), 171-200.
- 이은주, 이수정, 류민지 (2022). 한국판 아동-청소년 정서 행동 적응 검사 (K-EBA) 개발을 위한 리뷰 연구. **교정담론**, 16(1), 125-149. doi:10.46626/affc.2022.16.1.5
- 이용택, 이은경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죄책감을 매개변인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0(1), 55-70. doi:10.35151/kyci.2012.20.1.004
- 이정림, 김길숙, 송신영, 이예진, 김진미, 김신경 (2015). **한국아동패널 2015**.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애, 김가현 (2022).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와의 관계: 그릿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42(4), 209-227. doi:10.15709/hswr.2022.42.4.209
- 이정윤, 최수미 (2011).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2), 635-650. doi:10.15703/kjc.12.2.201104.635
- 이주리 (2008). 청소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26(5), 51-60.
- 이준기, 강근모 (2015).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내재화 변인과 외현화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3(1), 247-271.
- 이차선 (2000). 가정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제주도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백록논총**, 2, 109-138.
- 이찬숙, 현은자 (2008). 유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변인과 부모양육태도. **유아교육연구**, 28(3), 51-70. doi:10.18023/kjece.2008.28.3.003
- 이해경 (2013). 비행 청소년들의 내재화/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생활부적응문제들의 영향력과 성차. **청소년복지연구**, 15(3), 295-319.
- 장유진, 이승연, 장유나, 홍세희 (2021). 청소년의 그릿, 주의집중 문제, 공격성 간의 관계: 휴대전화 의존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교육학연구**, 27(1), 377-405. doi:10.29318/KER.27.1.14
- 정혜원, 김예림, 박소영 (2020). 초·중학생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673-693. doi:10.22251/jlcci.2020.20.8.673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좌현숙 (2010). 청소년 내재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발달-맥락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청소년학연구**, 17(10), 105-133.

- 최예라 (2022). **어머니의 그릇과 아동의 문제행동: 양육행동과 아동의 그릇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정원, 조은영 (2020). 부모 학대와 또래 애착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공격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1(1), 33-52. doi:10.14816/sky.2020.31.1.33
- 하문선 (2017).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 종단적 변화와 가정환경, 정서행동문제 간 관계. **청소년학연구**, 24(3), 25-59. doi:10.21509/KJYS.2017.03.24.3.25
- 하문선, 김은선, 한은지 (202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사이버비행 및 현실비행 간 관계. **중등교육연구**, 69(2), 209-24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KCYPS 2018 제1~5차 조사 유저 가이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은영 (2014).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8, 206-231.
- 허준 (2015). **허준의 쉽게 따라하는 Amos 구조방정식모형: 고급편**. 서울: 한나래출판사.
- 황매향 (2019). 학업상담에서의 그릇의 의미와 증진 방안 탐색. **초등상담연구**, 18(1), 1-21. doi:10.28972/kjec.2019.18.1.001
- Achenbach, T. M. (1978). The Child Behavior Profile: I. Boys aged 6-11.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3), 478-488. doi:10.1037/0022-006X.46.3.478
- Achenbach, T. M. (1991a).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 (1991b). Manual for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101*, 213-232.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Dep. Psychiatry, Univ. Vermont.
- Achenbach, T. M., Ivanova, M. Y., Rescorla, L. A., Turner, L. V., & Althoff, R. R. (2016). Internalizing/Externalizing Problems: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Clinical and Research Applic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55(8), 647-656. doi:10.1016/j.jaac.2016.05.012
- Achenbach, T. N.,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BA Preschool Forms &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 Ban, J., & Oh, I. (2016). Mediating effects of teacher and peer relationships

- between parental abuse/neglect and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Child Abuse & Neglect*, 61, 35-42. doi:10.1016/j.chiabu.2016.09.010
- Bollen, K. A., & Curran, P. J. (2006). *Latent curve models: A structural equation perspective*. NY: John Wiley & Sons.
- Buist, K. L., Deković, M., Meeus, W., & van Aken, M. A. (2004).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early adolescent attachment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ce*, 27(3), 251-266. doi:10.1016/j.adolescence.2003.11.012
- Burnay, J., Billieux, J., Blairy, S., & Larøi, F. (2015). Which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e Internet addiction? Evidence through an integrative model.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3, 28-34. doi:10.1016/j.chb.2014.10.039
- Cheong, J., MacKinnon, D. P., & Khoo, S. T. (2003). Investigation of mediational processes using parallel process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0(2), 238-262. doi:10.1207/S15328007SEM1002\_5
- Collishaw, S. (2015). Annual research review: Secular trends in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6(3), 370-393. doi:10.1111/jcpp.12372
- Compas, B. E., Orosan, P. G., & Grant, K. E. (1993). Adolescent stress and coping: Implications for psychopathology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6(3), 331-349. doi:10.1006/jado.1993.1028
- Coopersmith, S. (1981). *Self-esteem Inventories*.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doi:10.1111/j.1467-8624.1995.tb00900.x
- Cross, M. (2011). *Children with social, emotional and behavioural difficulties and communication problems: There is always a reason*. London, UK: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doi:10.1207/S15327965PLI1104\_01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doi:10.1207/s15327752jpa4901\_13
- Dimidjian, S., Martell, C. R., Herman-Dunn, R., & Hubley, S. (2021). Behavioral activation for depression. In D. H. Barlow (Ed.), *Clinical handbook of psychological disorders: A step-by-step treatment manual* (pp. 339-380). New York, NY: Guilford Press.
- Duckworth, A. (2016).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Vol. 234). New York: Scribner.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doi:10.1037/0022-3514.92.6.1087
- Duckworth, L. A., Steen, T. A., & Seligman, M. E. (2005). Positive psychology in clinical practice. *Annual Reviews of Clinical Psychology*, 1, 629-651. doi:10.1146/annurev.clinpsy.1.102803.144154
- Dumont, M., & Provost, M. A. (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3), 343-363.
- Elhai, J. D., Dvorak, R. D., Levine, J. C., & Hall, B. J. (2017). Problematic smartphone use: A conceptual overview and systematic review of relations with anxiety and depression psychopatholog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07, 251-259. doi:10.1016/j.jad.2016.08.030
- Fernandes, H. I. V. M., Andrade, L. M. C., Martins, M. M., Rolim, K. M. C., Millions, R. M., Frota, M. A., & Albuquerque, F. H. S. (2020). Happiness as a strength in the promotion of adolescent and adult young health. *Revista brasileira de enfermagem*, 73(3), e20190064. doi:10.1590/0034-7167-2019-0064
- Fortuin, J., van Geel, M., & Vedder, P. (2015). Peer influences 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mong adolescents: A longitudinal social network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4, 887-897. doi:10.1007/s10964-014-0168-x
- Hampel, P., & Petermann, F. (2006). Perceived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8(4), 409-415. doi:10.1016/j.jadohealth.2005.02.014

- Hughes, R. G., & Rogers, A. E. (2004). Are You Tired?: Sleep deprivation compromises nurses' health—and jeopardizes patients. *AJN Th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104(3), 36-38.
- Garaigordobil, M. (2015). Predictor variables of happiness and its connection with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health. *Frontiers in Psychology*, 6, 133172. doi:10.3389/fpsyg.2015.01176
- Gilliom, M., & Shaw, D. S. (2004). Codevelopment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2), 313-333. doi:10.1017/S0954579404044530
- Guerrero, L. R., Dudovitz, R., Chung, P. J., Dosanjh, K. K., & Wong, M. D. (2016). Grit: A potential protective factor against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behaviors among Latino adolescents. *Academic pediatrics*, 16(3), 275-281. doi:10.1016/j.acap.2015.12.016
- Jessor, R., & Jessor, S. L. (1977). *Problem behavior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youth*. New York, NY: Academic Press.
- Kauffman, J. (1997).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6th ed.). Columbus, OH: Merrill.
- Kılıçarslan, S., & Liman, B. (2020).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International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Sciences*, 12(5), 244-262. doi:10.15345/iojes.2020.05.017
-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aconi, S., Tricard, N., & Chabrol, H. (2015). Differences between specific and generalized problematic Internet uses according to gender, age, time spent online and psychopathological symptom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8, 236-244. doi:10.1016/j.chb.2015.02.006
- Landrum, T. J. (2017).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In *Handbook of special education* (pp. 312-324). New York, NY: Routledge.
- Lee, J., Sung, M. J., Song, S. H., Lee, Y. M., Lee, J. J., Cho, S. M., Park, M., & Shin, Y. M. (2018). Psychological factors associated with smartphone addiction in South Korean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8(3), 288-302. doi:10.1177/0272431616670751

- Lilienfeld, S. O. (2003). Comorbidity between and within childhoo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disorders: Reflections and directio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 285-291. doi:10.1023/A:1023229529866
- Liu, K., Thompson, R. C., Watson, J., Montena, A. L., & Warren, S. L. (2023).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Symptoms in Youth and Associated Gender Differences: A Directed Network Perspective. *Research on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51, 1627-1639. doi:10.1007/s10802-023-01106-4
- McKnight, C. G., Huebner, E. S., & Suldo, S. (2002). Relationships among stressful life events, temperament, problem behavior, and global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39(6), 677-687. doi:10.1002/pits.10062
- Meeus, W. (2016). Adolescent psychosocial development: A review of longitudinal models and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52(12), 1969-1993.
- Myers, S. S., & Pianta, R. C. (2008). Developmental Commentary: Individual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Student: Teacher Relationships and Children's Early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7(3), 600-608. doi:10.1080/15374410802148160
- Oh, Y., Greenberg, M. T., Willoughby, M. T., & Family Life Project Key Investigators (2020). Examining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t Within- and Between-Child Leve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8, 467-480. doi:10.1007/s10802-019-00614-6
- Olweus, D. (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6), 644-660. doi:10.1037/0012-1649.16.6.644
- Orth, U., Erol, R. Y., & Luciano, E. C. (2018). Development of self-esteem from age 4 to 94 years: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44(10), 1045-1080. doi:10.1037/bul0000161
- Petersen, A. C. (1988).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9(1), 583-607. doi:10.1146/annurev.ps.39.020188.003055
- Redeker, N. S., Ruggiero, J. S., & Hedges, C. (2004). Sleep is related to physical function and emotional well-being after cardiac surgery. *Nursing Research*, 53(3), 154-162.

- Reitz, E., Deković, M., & Meijer, A. M. (2005). The Structure and Stability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 577-588. doi:10.1007/s10964-005-8947-z
- Rosenberg, F. R., Rosenberg, M., & McCord, J. (1978). Self-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3), 279-294. doi:10.1007/BF0153797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orda, D. L., & Koomen, H. M. Y. (2020).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and Student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A Cross-Lagged Study in Secondary Education. *Child Development*, 92(1), 174-188. doi:10.1111/cdev.13394
- Rowan, A. N. (2023). World happiness report 2023. *WellBeing News*, 5(3), 1-5.
- Rubens, S. L., Evans, S. C., Becker, S. P., Fite, P. J., & Tountas, A. M. (2017). Self-reported time in bed and sleep quality in association with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symptoms in school-age youth.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8, 455-467. doi:10.1007/s10578-016-0672-1
- State, T. M., & Kern, L. (2017). Life Satisfac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with Social,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19(4), 205-215. doi:10.1177/1098300717714573
- Taveras, E. M., Rifas-Shiman, S. L., Oken, E., Gunderson, E. P., & Gillman, M. W. (2008). Short sleep duration in infancy and risk of childhood overweight.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62(4), 305-311. doi:10.1001/archpedi.162.4.305
- Thapar, A., Collishaw, S., Pine, D. S., & Thapar, A. K. (2012). Depression in adolescence. *The lancet*, 379(9820), 1056-1067. doi:10.1016/S0140-6736(11)60871-4
- Uusitalo-Malmivaara, L., & Lehto, J. E. (2013). Social factors explaining children's subjective happiness and depressive symptom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1, 603-615. doi:10.1007/s11205-012-0022-z
- Wang, J., & Wang, R. (201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lications Using Mplus*.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Wolff, J. C., & Ollendick, T. H. (2006). The comorbidity of conduct problems and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9, 201-220. doi:10.1007/s10567-006-0011-3
- Wolfson, A. R., & Carskadon, M. A. (2003). Understanding adolescent's sleep patterns and school performance: A critical appraisal. *Sleep medicine reviews*, 7(6), 491-506. doi:10.1016/S1087-0792(03)90003-7
- Xu, Z., Turel, O., & Yuan, Y. (2012). Online game addiction among adolescents: Motivation and prevention factors.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21(3), 321-340. doi:10.1057/ejis.2011.56
- You, S., Shin, K., & Kim, M. (2021). Long-Term Effect of Physical Activity 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nd Life Satisfaction. *Sustainability*, 13(4), 2322. doi:10.3390/su13042322
- Zimmerman, M. A., Copeland, L. A., Shope, J. T., & Dielman, T. E. (1997). A longitudinal study of self-esteem: Implications for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 117-141. doi:10.1023/A:1024596313925

## ABSTRACT

### Exploring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s and predictors between the change trajectory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Ban, Jiyeon\* · Kim, Donghw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rajectory of change in perceive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o identify the predictors of such change. A panel of 4th graders from the KCYPS 2018 conducted by the Korea Youth Policy Research Institute were used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analyzed data from 1,897 participants over a five-year period, from 4th grade in the 1st wave (2018) to 8th grade in the 5th wave (2022) was then used.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in 5th grade, both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increased as grade level increased. Second, the initial value of externaliz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ate of change of externalizing only, while the initial value of internaliz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ate of change of internalizing only. Third, the predictors of change trajectories for externalizing were gender, sleep quality, self-esteem, grit, smartphone dependence, negative parenting, student-teacher relationship, initial externalizing, and initial internalizing. Predictors of change trajectories for internalizing were gender, sleep quality, happiness, self-esteem, grit, smartphone dependence, negative parenting, positive peer relationships, initial externalizing, and initial internalizing. In other words, the common protective factors for both behaviors were sleep quality, self-esteem, grit, and the common risk factors were smartphone dependence, negative parenting, early externalizing, and early internalizing.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pose a number of practical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protective factors and reducing risk factors for adolescent emotional behavior problems.

**Key Words:** externalizing, internalizing, trajectories, predictors,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KCYPS 2018

---

\* Seowon University

\*\*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